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김복량* 김신희** 김옥숙***
남영화** 이길자**** 정복례*****

I. 서론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의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사회 건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병원에서 고유한 봉사기능과 더불어 경영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더우기 의료대상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호의 업무와 이미지의 중요성은 그 인식을 매우 달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병원체제 속에서의 간호는 간호대상자의 신체, 정신, 환경 전체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인간을 관찰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조정해 줌으로써 건강의 유지증진을 돕고자 하는 전인간호 개념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결함, 병원여건의 불비(不備),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결함, 간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전인간호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문직 간호사들이 일반 다른 대학과정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임상실습을 겸하며,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높은 전문지식을 습득, 응용하는 과정을 거쳐 병원, 산업장, 학교, 보건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간호사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중들 뿐 아니라 간호사 자신도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것이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향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최근 80년대 이후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면담조사를 한 경우는 드물고 설문지를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간호대상자로부터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간호전문직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간호전문직 위상정립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이미지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현 세대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간호관리, 간호교육 및 간호 전문직의 위상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이미지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종합(Kolter, 1987)이며, 지각, 정신적 영상, 표현, 상징, 외관(Diana Mendez & Margaret Louis, 1991)이고 어떤 사물의 이름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 영상, 심상(李와 金, 1985)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개개인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생각할 때, 그 특정 대상에 대해 그 개인이 가지는 정신적 영상, 상징 또는 관념의 합(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사와 간호의 모든 면을 보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표현(Kalisch & Kalisch, 1983)이고, 간호사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아개념이나 자아상(이숙자, 1986)이며, 각기 다른 성장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성현란, 1978)이고,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

*포항선린전문대학 간호과, **안동전문대학 간호과, ***춘해전문대학 간호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고, 개인이 갖는 간호사 상의 외형적 상태로서 간호를 둘러싼 여러 개념에 대한 그 시대 및 그 지역의 환경 또는 개인의 인지의 합(이 소우 등, 197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산초 등(1972)은 '간호사 상은 바람직한가?'라는 논의를 통해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고찰을 했다. 박성애 등(1992)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4가지 유형의 간호이미지-나이팅게일형, 삐꾸기 등지형, 현실개선형,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型-로, 윤은자(1995)는 3가지 유형-금지형, 갈등형, 진보형으로 분류했다. 송인자(1993)는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분석 결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데, 일반인들은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반면, 간호사와 상호협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는 타 관련 부서 직원은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경우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여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전문성, 진료분야의 기여 등에 대해서 오히려 의사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Kalisch & Kalisch(1982)은 소설과 영화 속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소설 속의 간호사 이미지는 진실하고, 항상 여성으로 묘사되고 간호와 관련하여 전통적 여성의 역할로 강조되면서 이타적이고 성실하며, 온정적이고 훈육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에서의 간호사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가치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보다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alisch & Kalisch(1982)은 년대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를 1854년에서 1919년에는 '자비의 천사'로, 1920-1929년에는 '여비서'로, 1930년과 1945년에는 '영웅같은 여성(Heroine)'으로, 1946년과 1965년에는 '어머니'로, 1966년에서 1982년에는 '성적 대상(sexual objects)'으로 변해 왔다고 보고했다. Raynor(1984)의 조사에서는 간호사가 '극도로 고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간호는 전문직이며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출신성을 이용하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들은 간호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간호사들이 잘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Sparrow(1987)는 자신의 연구에서 '천사의 이미지', 'Battle ax(전부; 戰斧)' '성적 상징', '의사의 심부름꾼으로 항상 품먹인 앞치마와 캡을 쓴 단복을 입은 여성'이라고 보고했다. 536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한

Lee(1979)의 보고에 의하면 간호사에 대해 '심부름꾼'의 이미지가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는 "RN은 많은 상황에서 LPN(Licensed Practical Nurse), 보조원, PA (Physician Asistant)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고, 간호를 분리된 학문이라기 보다는 의학의 확대라고 보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Snow - Antle (1984)은 간호가 독자적인 학문이 되는 어떤 중대한 특징을 대중이 좀 더 많이 알기 시작한다고 했고, 간호는 전문직의 이미지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수년에 거쳐 개선되어 왔고 대중이 모든 변화를 다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보았다. Diana Mendez & Margaret Louis (1991)는 전문직 선택에 있어서의 대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간호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처음 전문직을 선택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간호계 대학생들의 경우, 간호의 이미지와 이상적인 전문직간에 $r=.4072$ 수준으로 상관이 있고, 간호계 대학생의 경우는 $r=.5941$ 수준으로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언급된 간호사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긍정적 이미지로는 '항상 바쁘게 일한다', '하는 일이 가치있는 일이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환자를 사랑한다', '이해심이 많다', '합리적·논리적으로 일처리를 한다', '용모 깨끗·단정',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 '숙련된 간호기술을 가지고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하다',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지니고 있다', '자기희생적이고, 고상하며, 자비롭고, 아름답고, 젊은 여성', '위험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있는 여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의사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수동적인 일을 하면서 스스로 높게 평가한다', '간호는 분리된 학문이기보다는 의학의 확대로서 간호사는 많은 상황에서 LPN, 보조원, PA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변덕스럽고 고집센 이미지', '의사의 보조자 뿐 아니라 인턴의 성적 긴장에 대한 구원의 유형', '충동적이고 강박적 인물', '명령에 열중하고 대상자로서 남성을 다루는 힘이 있는 인물', '의사가 잘못했을 때 초차도 의사의 권위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복종적인 인물' 등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과 대중들이 간호사와 간호직에 대해 가지는 관념 혹은 영상(映像)으로, 이상적인 간호사란 예쁘고, 바람직하게 젊고, 냉정하고, 조용하고, 능률적이고, 유니폼이 구김살없이 깨끗하며 상냥한 성격을 지닌, 성숙하고, 모든 도덕의 주축이 되는 정직, 환자, 가족, 의사로부터의 전적인 신뢰, 박애

정신을 봉사이념으로 하는 성실성, 인류애, 자기희생, 병원관리나 행정에 대한 협조, 참여의식 등의 자질과 충분한 간호지식 및 기술의 소유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와 3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214명과 비간호학생 112명으로 전체 3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중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한 학생 110명, 임상실습을 하지 않는 학생 104명 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 즉 성별, 병원 입원경험 유무, 가족 중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지의 유무와 대상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로 나누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1995년 4월 30일부터 5월31일 까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무작위 배부하고, 다음날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각 대학별 70부씩 총 420부이며, 회수된 질문지는 350부로 회수율은 83.3%였다. 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자가 참석 한 가운데 각 응답자의 진술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분류하였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진술을 분류할 때는 명확하게 범주를 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한 다음 분류하여 범주화 하였으며, 진술빈도가 높은 차례로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대상자 중 간호학생은 214명 이었다. 이들 중 임상실습을 한 학생은 110명,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은 104명이었고, 대상자 가족 중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가 각각 82.7%, 78.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6.4%, 77.9%로 나타났다. 가족 중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7.3%, 5.8%이며,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는 각각 15.5%, 11.6%로 나타났으며, 가족 중 간호조무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4%, 2.9%로 대부분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간호학생		비간호학생
	임상실습 N(%)	비실습 N(%)	N(%)
성별	남 여	110(100.0)	104(100.0) 61(54.5) 51(45.5)
입원경험	유	91(82.7)	82(78.9)
	무	19(17.3)	20(19.2)
	무응답		2(1.9)
본인	유	25(22.7)	21(20.2)
	무	84(76.4)	81(77.9)
	무응답	1(0.9)	2(1.9)
가족 중	유	8(7.3)	6(5.8)
	무	100(90.9)	94(90.4)
	무응답		4(3.8)
간호사	유	17(15.5)	12(11.6)
	무	92(83.6)	88(84.6)
	무응답	1(0.9)	4(3.8)
간호조무사	유	7(6.4)	3(2.9)
	무	102(92.7)	99(95.2)
	무응답		2(1.9)
계		110(100.0)	104(100.0) 112(100.0)

대상자 중 비간호학생은 112명 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 54.4%, 여자45.5%로 나타났고, 병원입원경험 중 가족이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2.1%, 대상자 본인이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2%로 나타났다. 가족 중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9%, 간호조무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로 나타나 간호학생의 경우와 같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1) 긍정적 이미지

대상자들이 나타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표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1개 범주 즉, 「친절하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봉사한다」, 「다정하고 편안하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예쁘다」,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밝고 명랑하다」, 「지적이다」, 「천사같다」, 「숙련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강인하다」,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를 가진다」, 「착하다」, 「숭고하다」, 「나이팅게일 이미지」의 순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표 2-1〉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친절하다(250)	친절하다(117) 검사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준다(49) 상냥하다(41) 자세히 잘 설명해 준다(11) 질문에 대답을 잘 해준다(10) 밝고 맑은 인사성(5)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한다(4) 겸손하다(4) 예의바르다(3) 병원체계에 대해 잘 설명해 준다(2) 실수를 하면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좋다(1) 환자의 편의에 힘쓴다(1)
깨끗하고 다정하다(223)	깨끗하다(107) 단정하다(31) 청결하다(25) 깔끔하다(23) 순결하다(14) 깔끔하고 정갈해 보인다(12) 정결해 보인다(8) 정돈되어 보인다(1) 하얗다(1) 위생적이다(1)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193)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43) 전문적이다(26) 보수가 좋다(20) 생명과 직접 연결된 유용한 직업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공헌한다(14) 안정되고 전문적인 직업이다(12) 전문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8) 직업의식이 투철하다(7) 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6)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다(6)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6)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4) 여성 직업으로 적절하다(4) 경제력을 지닌다(4)

「친절하다」범주에는 '친절하다', '검사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준다', '상냥하다' 등의 진술들이 포함되었고, 「깨끗하고 단정하다」범주에는 '깨끗하다', '단정하다', '청결하다', '깔끔하다' 등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다」범주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이다', '보수가 좋다' 등이, 「봉사한다」범주에는 '봉사한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등이, 「다정하고 편안하다」범주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편안하다', '가족과 같이 대해준다', '다정다감하다' 등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범주에는 '성실하다', '책임감강하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 등이, 「예쁘다」범주에는 '예쁘다', '아름답다', '여성적이고 아름답다' 등이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범주에는 '환자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준다',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준다', '환자 입장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등이, 「밝고 명랑하다」범주에는 '항상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밝다', '항상 미소를 띄고 있다' 등이, 「지적이다」범주에는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일한다', '지적이다', '똑똑하다', '상식이 많다' 등이, 「천사같다」범주에는 '백의의 천사', '등불의천사', 등이, 「숙련되다」범주에는 '능숙한 기술을 지닌다', '상황에 대처능력이 있다' 등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범주에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의료인 간의 동료애가 엇보인다', '간호사간의 결속력이 강하다' 등이, 「강인하다」범주에는 '강하다', '당당하다', '강인하다', '자립의식이 강하다' 등이,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를 지닌다」범주에는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지닌다', '자기성찰을 계속한다', '노력한다' 등이, 「착하다」범주에는 '착하다', '선해 보인다' 등이, 「침착하다」범주에는 '침착하다', '조용하다', '차분하다' 등이, 「인내심이 강하다」범주에는 '인내심이 강하다', '참을성이 강하다' 등이,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범주에는 '신성하다', '숭고하다', '의롭다' 등이, 「나이팅게일 이미지」범주에는 '나이팅게일'이 포함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21개의 범주로 나뉜 대상자들의 긍정적 이미지 진술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표 2-2〉에서와 같이 「친절하다」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깨끗하고 단정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봉사한다」, 「다정하고 편안하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이팅게일 이미지」, 「숭고하다」,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다」, 「인내심이 강하다」, 「침착하다」, 「착하다」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은 적게 나타났다.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평생 직업인이다(3)
	전문가이다(3)
	직업 자체가 좋다(3)
	취직이 잘 된다(3)
	전문자격증을 지닌 안정된 직업이다(3)
	직업을 연장하여 결혼 후 유아교육에 도움이 된다(2)
	힘들지만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2)
	자신의 일을 자신있게 한다(2)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다(2)
	자신감이 있다(2)
	자신의 적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2)
	공지를 가지고 있다(2)
	안정감을 느낀다(1)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1)
	소속감이 강하다(1)
	이직하더라도 전공을 살릴 수 있다(1)
	의료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1)
봉사한다(151)	봉사한다(68)
	헌신적이다(25)
	봉사적이고 희생적이다(20)
	희생적이다(14)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한다(4)
	사랑을 실천한다(4)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3)
	힘든 일을 짜증내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일한다(3)
	환자를 정성껏 돌보아준다(2)
	잠을 안자고 헌신적으로 간호해 준다(2)
	서어비스(2)
	임종환자에게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준다(1)
	남을 돕는다(1)
다정하고 편안하다(143)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43)
	편안하다(14)
	가족과 같이 대해준다(10)
	다정다감하다(8)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인간미가 있다(7)
	어머니 같이 자상하다(7)
	의사보다 편하게 느껴진다(7)
	아이와 잘 놀아준다(6)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5)
	편하게 느껴진다(5)
	포근하다(4)
	부드러워 보인다(4)
	누나(언니)같이 대해준다(4)
	친근하게 느껴진다(3)
	의지하고 싶다(3)
	모성애가 있다(2)
	친근감이 있다(2)
	믿음이 간다(2)
	친구같다(1)
	평온(1)
	아늑한 느낌이 든다(1)
	정신적인 위안을 준다(1)
	호의적이다(1)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다(108)	성실하다(28)
	책임감이 강하다(25)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8)
	섬세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다(6)
	밤늦도록 열심히 일한다(6)
	과중한 업무에도 충실하게 일한다(6)
	매사를 철저히 수행한다(5)
	힘들지만 감정표현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좋다(4)
	최선을 다한다(3)
	업무 분담이 확실하다(2)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2)
	물품관리와 정돈을 잘한다(2)
	부지런하다(2)
	적극적이다(2)
	소명의식이 강하다(2)
	열심히 사는 것 같다(2)
	사명감이 강하다(1)
	공사구분을 분명히 한다(1)
	근무시간을 잘 지킨다(1)
예쁘다(97)	예쁘다(60)
	아름답다(21)
	여성적이고 아름답다(8)
	날씬하다(5)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백치미(2)
	귀엽다(1)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80)	환자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준다(19)
	환자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준다(19)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준다(19)
	환자 입장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12)
	환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8)
	환자의 정신적인 면까지 간호한다(4)
	환자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3)
	환자의 불평불만을 잘 들어준다(3)
	아픈 곳을 잘 다독겨려 준다(3)
	환자와 자주 대화한다(2)
	격려해준다(2)
	환자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1)
	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다(1)
	자세히 물어보고 격정해 준다(1)
	퇴원후 배려가 좋다(1)
	환자의 생명을 위해 어떤 일도 한다(1)
밝고 명랑하다(76)	환자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다(31)
	밝다(18)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7)
	밝고 화사한 미소(6)
	건강하다(5)
	밝고 명랑하다(4)
	발랄하다(2)
	쾌활하다(2)
	희망(1)
지적이다(58)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일한다(21)
	지적이다(15)
	똑똑하다(6)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다
	냉철하게 판단한다(3)
	박식하다(2)
	관찰력이 뛰어나다(1)
	과학적이다(1)
	의료에 관한 지식이 많다(1)
	자신의 분야에 대해 정확히 안다(1)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환자 요구를 잘 구분 처리한다(1)
	명철하다(1)
	유식해 보인다(1)
천사같다(57)	백의의 천사55
	등불의 천사(2)
숙련되다(54)	능숙한 기술을 지닌다(21)
	상황에 대처 능력이 있다(13)
	일을 체계적으로 한다(6)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알맞는 간호 활동을 수행한다(5)
	주사를 안 아프게 잘 놓는다(5)
대인관계가	
원만하다(49)	대인관계가 원만하다(19)
	의료인 간의 동료애가 엇보인다(10)
	간호사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6)
	화통하고 사교적이다(4)
	어려울 때 상부상조한다(3)
	아이들을 잘 달래준다(3)
	넓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다(2)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좋은 사교성이 있다(1)
	의사와 협조적이다(1)
강인하다(44)	강하다(8)
	당당하다(5)
	강인하다(5)
	자립의식이 강한 여성이다(4)
	독립적이다(3)
	힘든일을 잘 소화하여 나가는 훌륭한 여성이다(3)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한다(2)
	활동적인 여성이다(2)
	용기 있다(2)
	자기 주관이 강하다(2)
	두려움이 없는 듯하다(1)
	힘든 일을 잘 견뎌낸다(1)
	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1)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산다(1)
	씩씩하다(1)
	꾸뚝하다(1)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탐구자세를	
지닌다.(35)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지닌다.(15)
	자기 성찰을 계속한다(9)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노력한다(4) 병원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을 잘 한다(2) 자질을 갖추려고 학문에 애쓰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2) 업무 외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2)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한다(1)
착하다(27)	착하다(23) 선해보인다(2) 선량하게 보인다(2)
침착하다(26)	침착하다(12) 조용하다(8) 차분하다(5) 응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환자 보호자를 위로한다(1)
인내심이 강하다(18)	인내심이 강하다(12) 참을성이 강하다(2)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인내력이 강한 여성이다(2)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딘다(2)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다(17)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4) 환자·보호자에게 인간적으로 대한다(3) 인간적이다(3) 환자나 가족을 존중해 준다(2) 환자의 Privacy를 지켜준다(2) 편견없이 환자를 대한다(1)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숭고하다(14)	신성하다(7) 숭고하다(4) 외롭다(1) 성인과 같은 느낌을 준다(1) 성스럽다(1)
나이팅게일 이미지(10)	나이팅게일(10)

<표 2-2> 간호학생과 비간호 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범주	총빈도	실습	간호학생(빈도순)		비간호학생(빈도순)
			비실습	전체	
친절하다	250	84(2)	105(1)	189(1)	61(2)
깨끗하다	223	50(4)	82(2)	132(3)	91(1)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193	93(1)	68(4)	161(2)	32(6)
봉사한다	151	24(11)	81(3)	105(5)	46(4)
다정하고 편안하다	143	50(4)	57(5)	107(4)	49(3)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다	108	43(6)	41(6)	84(6)	24(9)
예쁘다	97	17(13)	37(7)	54(8)	43(5)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80	59(3)	14(13)	73(7)	7(13)
밝고 명랑하다	76	24(11)	23(11)	47(11)	29(7)
지적이다	58	28(9)	25(9)	54(10)	5(16)
천사같다	57	6(16)	24(10)	30(14)	27(8)
숙련되다	54	43(6)	11(17)	54(8)	-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49	39(8)	4(19)	43(12)	6(15)
강인하다	44	7(15)	30(8)	37(13)	7(13)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탐구 자세를 지닌다	35	26(10)	-	26(15)	9(11)
착하다	27	6(16)	12(16)	18(17)	9(11)
침착하다	26	6(16)	16(12)	22(16)	4(17)
인내심이 강하다	18	-	14(14)	14(19)	4(17)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다	17	9(14)	8(18)	17(18)	-
숭고하다	14	-	14(13)	14(19)	-
나이팅게일 이미지	10	-	-	-	10(10)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간호학생과 비간호 학생을 비교해 보면, 간호학생은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로 「친절하다」범주에 속하는 진술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다정하고 편안하다」, 「봉사한다」는 범주의 진술들이 많았다. 비간호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깨끗하고 단정하다」범주의 진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절하다」, 「다정하고 편안하다」, 「봉사한다」, 「예쁘다」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많았다.

한편, 간호학생의 경우 「숙련되다」,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다」, 「승고하다」범주에 속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비간호학생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간호학생의 경우, 「나이팅게일 이미지」 범주에 속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반면, 비간호학생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을 표현하였다.

간호학생들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간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친절하다」,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많은 반면에,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친절하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봉사한다」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많았다.

2) 부정적 이미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친절하다」, 「냉정하다」, 「힘든 과업이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단정하지 못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경망스럽고 수다스럽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공정성이 부족하다」, 「잘난 척한다」,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탐구자세가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물품관리가 비 효율적이다」로 21개 범주에 구분되었다.

대상자의 진술 중 「불친절하다」의 범주에는 「불친절하다」, 「짜증을 잘 낸다」, 「태도와 말투가 공손하지 못하다」, 「무뚝뚝하다」, 「신경질적이다」 등이 포함되었고, 「힘든 과업이다」의 범주에는 「힘들어 보인다」, 「항상 피곤해 보인다」, 「항상 바쁘다」, 「3교대 근무로 힘들어 보인다」 등이, 「형식적이다」의 범주에는 「무성의하다」, 「사무적이다」, 「형식적인 간호를 한다」, 「일상적인 간호만 한다」 등이 「비인간적이다」의 범주에는 「환자를 무시한다」, 「자기 기분에 따라 환자를 대한다」, 「묻는 말을 무시하고 답하지 않는다」 등이, 「단정하지 못하다」의 범주에는 「화장이 너무 진

하다」, 「머리·복장 등이 단정하지 못하다」, 「신발이 지저분하다」, 「신발을 끌고 다닌다」 등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의 범주에는 「직업의식이 부족하다」, 「의사에게 열등감이 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 또는 Pride가 없다」 등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의 범주에는 「주사행위가 서투르다」, 「전공에 대한 편협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 「기술이 숙련되어 있지 않다」,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등이, 「경망스럽고 수다스럽다」의 범주에는 「잡담을 많이 한다」, 「수다스럽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말한다」, 「근무시간에 웃고 떠든다」 등이, 「책임감이 부족하다」의 범주에는 「책임감이 부족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자기 할 일을 즉각하지 않고 여유부리며 미룬다」, 「책임을 회피한다」 등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의 범주에는 「간호사들끼리 불화가 잦다」, 「환자·보호자·의사들과 다툼이 많다」, 「의료인간의 협력정신이 부족하다」 등이, 「무섭다」의 범주에는 「무섭다」, 「독해 보인다」,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등이, 「독자적이지 못하다」의 범주에는 「의사에게 종속적이다」, 「독자적인 활동영역이 불분명하다」, 「창조성이 부족하다」 등이, 「권위적이다」의 범주에는 「권위적이다」, 「환자에게 명령적이다」, 「위압감을 준다」 등이,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의 범주에는 「환자의 호소를 무시한다」, 「무관심하다」,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공정성이 부족하다」의 범주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능력에 따라 간호에 차별을 둔다」, 「의사와 환자를 대할 때 태도가 다르다」 등이 포함되었고, 「잘난 척 한다」의 범주에는 「잘난 척한다」, 「자만심과 우월감이 지나치다」, 「건방지다」 등이,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탐구자세가 부족하다」의 범주에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계속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등이, 「이기적이다」의 범주에는 「이기적이다」, 「봉사 이미지보다 실리,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의식」 등이, 「의사소통이 어렵다」의 범주에는 「너무 전문용어를 사용해 이해하기 어렵다」 등이, 「물품관리가 비 효율적이다」의 범주에는 「물품을 지나치게 아낀다」,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들의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진술들을 21개 범주로 구분해 본 결과, <표 3-2>에와 같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불친절하다」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냉정하다」, 「힘든 과업이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단정하지 못하다」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물품관리가 비 효율적이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기적이다」,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가 부족하다」의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은 적게 나타났다.

〈표 3-1〉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불친절하다(435)	불친정하다(209)	형식적이다(125)	과로(3)
	짜증을 잘 낸다(58)		격무에 시달린다(3)
	태도와 말투가 공손하지 못하다(47)		너무 일에 쫓겨 생활한다(2)
	무뚝뚝하다(32)		힘든 작업이다(2)
	신경질적이다(27)		스케줄이 빡빡하다(1)
	질문에 불성실하게 대답한다(21)		근무시간이 길다(1)
	설명을 잘해 주지 않는다(13)		무성의하다(23)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않는다(10)		사무적이다(21)
	땡땡거리다(10)		형식적인 간호는 하지 않고 일상적인 간호만 한다(12)
	말을 할 때 툭툭 쏜다(3)		대충 대충 성의없이 일한다(10)
	투덜거리다(2)		기계적으로 일처리 한다(7)
	감정적으로 대한다(2)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7)
	잔소리가 심하다(2)		로봇트 또는 기계같다(5)
	인상을 잘 쓴다(2)		습관적으로 일을 한다(5)
	귀찮아 한다(2)		환자를 직업적으로만 대한다(5)
	욕을 잘한다(1)		너무 형식적인 행동을 나타낸다(4)
	뻗뻗하다(1)		의무적이다(3)
냉정하다(196)	냉정하다(60)	확실적이다(2)	
	차갑다(32)	오래될수록 작은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2)	
	쌀쌀맞다(30)	원칙 만을 고수한다(1)	
	무표정하다(22)	비인간적이다(121)	
	너무 차갑고 딱딱하다(14)	환자를 무시한다(43)	
	딱딱한 느낌(10)	자기 기분에 따라 환자를 대한다(10)	
	웃음이 없다(7)	묻는 말을 무시하고 답하지 않는다(10)	
	거리감이 느껴진다(6)	환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9)	
	인간미가 없다(4)	환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7)	
	감정에 메말라 있다(3)	간호사들끼리 환자개개인을 화제거리로 삼는다(7)	
	간간하다(3)	치료시 사람으로 대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다(7)	
힘든 과업이다(155)	삭막하다(1)	환자를 한 인격체로 대해 주지 않는다(6)	
	힘들어 보인다(29)	간호사들끼리 환자 사생활을 흥미 삼아 얘기한다(6)	
	항상 피곤해 보인다(26)	환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창피를 준다(4)	
	항상 바쁘다(25)	환자를 무시하고 간호사 편의대로 한다(4)	
	3교대 근무로 인해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져 힘들어 보인다(11)	간호사들끼리 놀며 환자에게 소홀히 한다(4)	
	잡무가 많다(10)	비인간적이다(3)	
	시간에 쫓긴다(9)		
	업무가 과중하다(8)		
	stress를 많이 받는다(6)		
	병원균에 감염될 가능성 많은 위험한 업무이다(5)		
	규칙적인 생활을 못한다(5)		
밤근무가 힘들어 보인다(5)			
지쳐 보인다(4)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환자를 물건 취급한다(2)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목살한다(2)	
	사람을 무시한다(2)	
	환자를 함부로 다룬다(1)	
	환자 입장이 아닌 병원 입장에서 다룬다(1)	
	사람을 우습게 안다(1)	
	환자나 그 가족을 죄인처럼 다룬다(1)	
	단정하지 못하다(110)	화장이 너무 진하다(25)
		머리, 복장 등이 단정하지 못하다(22)
		까운과 신발이 지저분하다(15)
	신발을 끌고 다닌다(14)	
	겜을 씹으며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안좋다(13)	
	복장이 깨끗하지 못하다(8)	
	청결하지 못하다(3)	
	지저분해 보인다(3)	
	옷이 촌스럽다(2)	
	약세사리를 너무 많이 착용한다(2)	
	손톱이 길다(1)	
	지나치게 짧은 치마(1)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닌다(1)	
	캡이 거추장스럽다(1)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77)	직업의식이 부족하다(12)	
	의사에게 열등감이 있다(10)	
	직업에 사명감 또는 Pride가 없다(6)	
	보수수준이 낮고 지위도 낮다(6)	
	사명감 부족(4)	
	보수가 적다(4)	
	전문직업 의식이 약하다(4)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담당하지 못하다(4)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3)	
	전문직이라기 보다 단순노동이다(3)	
	사회적 위신이 의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3)	
	전문가라는 의식이 없다(3)	
	Power가 약하다(2)	
	직업에 대한 긍지가 없다(2)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2)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자부심이 없다(2)	
	간호직에 불만이 많다(1)	
	의사보다 못하다(1)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다(1)	
	여성에게만 국한된 직업이다(1)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1)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67)	주사행위가 서투르다(24)
		전공에 대한 편협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9)
		기술이 숙련되어 있지 않다(8)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7)
	상식이 부족하다(7)	
	무균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6)	
	이론적 배경이 약하다(2)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1)	
	통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1)	
	이론과 실제에 일치가 없다(1)	
	경망스럽고 수다스럽다(56)	잡담을 많이 한다(16)
		수다스럽다(11)
		스끄럽게 소리지르거나 말한다(11)
		근무시간에 웃고 떠든다(6)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나 전화를 한다(5)	
	무턱대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같다(2)	
	경망스럽다(2)	
	침착하지 못하다(1)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노출한다(1)	
	조심성없이 행동한다(1)	
	책임감이 부족하다(51)	책임감이 부족하다(1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7)
		무슨 일이든 자기할 일을 즉각하지 않고 여유부리며 미룬다(7)
		책임을 회피한다(7)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운다(5)	
	늦장 부린다(5)	
	팬히 바쁜 척하며 할 일을 다하지 않는다(3)	
	근무태만(1)	
	처음 온 환자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1)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대인관계가 원만 하지 못하다(48)	자기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1) 잊어버리고 잘 시행해주지 않는다 (1)	
	간호사들끼리의 불화가 잦다(12) 환자, 보호자, 의사들과 다툼이 많 다(9) 의료인 간의 협력정신이 부족하다 (7) 타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의식 을 가진다(4) 의사와 언쟁을 잘한다(4) 신입 간호사에게 너무 호된 행동을 한다(2) 타의료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노골 적으로 나타낸다(2) 의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2) 출신을 많이 따진다(1) 간호학생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1) 아랫사람을 환자면전에서 야단친다 (1) 조무사와 관계가 안좋은 것 같다(1) 의사와 상호 협조하지 않는다(1) 간호사 간의 유대가 부족하다	
	무섭다(32) 독해 보인다(4)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다(3) 잔인한 것 같다(2) 작은 병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1) 살벌하다(1) 공포의 대상(1)	
	독자적이지 못하다(39)	의사에 종속적이다(3) 독자적인 활동영역이 불분명하다(9) 창조성이 부족하다(8) 수동적이다(4) 의사에게 너무 순종적이다(3) 의존적인 경우가 많다(1) 의사지시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별 로 없는 것 같다(1)
	권위적이다(36)	권위적이다(23) 환자에게 명령적이다(8) 위압감을 준다(2)

범주 (빈도)	진술의 형태 (빈도)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31)	거만하다(1) 환자의 행동에 지나친 제한을 가한 다(1) 환자의 호소를 무시한다(10) 무관심하다(9)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5)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의 감정이나 말을 무시한다(5) 경청하지 않는다(2)
	공정성이 부족하다(31)
잘난 척한다(31)	잘난 척한다(18) 자만심과 우월감이 지나치다(4) 건방지다(4) 도도하다(2) 아는 체한다(2) 유식한 척한다(1)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탐구자세가 부족하다(5)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5) 계속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4)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3) 자아 발전의 의지가 부족하다(2)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 한다(1)
이기적이다(5)	이기적이다(3) 봉사이미지 보다 실리, 이익을 추 구하는 직업의식(2)
의사소통이 어렵다(5)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해하기 어렵다(4) 너무 의학적인 얘기를 하여 환자를 난처하게 한다(1)
물품관리가 비효율적이다(4)	물품을 지나치게 아낀다(2) 물품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2)

대상자들의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진술들을 21개 범주로 구분해 본 결과, <표 3-2>에와 같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불친절하다」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냉정하다」, 「힘든 과업이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단정하지 못하다」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물품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기적이다」,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가 부족하다」의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은 적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의 견해를 비교한 <표 3-2>를 보면, 두집단 모두 「불친절하다」, 「냉정하다」, 「힘든 과업이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단정하지 못하다」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많았다.

한편, 간호학생의 경우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탐구 자세가 부족하다」범주에 속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비간호학생의 경우 이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간호학생들의 경우, 「이기적이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범주에 속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반면, 비간호학생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을 소수 표현하였다

간호학생들 중 임상실습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 간의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임상실습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독자적이지 못하다」,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경망스럽고 수다스럽다」, 「권위적이다」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다수인 반면에,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나 소수만 표현되었다.

<표 3-2>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범 주	총빈도	간호학생(빈도순)			비간호 학생 (빈도순)
		실 습	비실습	전 체	
불친절하다.	435	120(1)	173(1)	293(1)	142(1)
냉정하다.	196	60(2)	86(3)	146(2)	50(2)
힘든 과업이다.	155	41(4)	87(2)	128(3)	27(6)
형식적이다.	125	47(3)	44(5)	93(4)	32(4)
비인간적이다.	121	36(5)	53(4)	89(5)	32(4)
단정하지 못하다.	110	34(7)	42(6)	76(6)	34(3)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77	29(11)	34(7)	61(7)	14(10)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67	31(9)	18(9)	49(8)	18(9)
경망스럽고 수다스럽다.	56	26(12)	5(13)	31(12)	25(7)
책임감이 부족하다.	51	24(13)	18(9)	42(9)	9(13)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48	35(6)	4(15)	39(10)	9(13)
무섭다.	44	5(18)	19(8)	24(15)	20(8)
독자적이다.	39	34(7)		34(11)	5(16)
권위적이다.	36	23(14)	5(13)	28(14)	8(15)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31	31(9)		31(12)	
공정성 부족하다.	31	9(15)	9(12)	18(16)	13(12)
잘난 척한다.	31	6(17)	11(10)	17(17)	14(10)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가 부족하다.	11	7(16)	4(15)	11(18)	
이기적이다.	5				5(16)
의사소통이 어렵다.	5	4(19)		4(19)	5(16)
물품관리가 비효율적이다.	4				

V. 논 의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진술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각각 21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되어야 할 영역의 확인과 바람직한 간호사 상의 정립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실제로 서술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긍정적 이미지로 「친절하다」의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부정적 이미지로 「불친절하다」의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간호사에 대해 생각할 때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하는 것부터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간호사의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친절하다」는 이미지 형성에 관련된 진술내용들을 보면 「친절하다」, 「검사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준다」, 「상냥하다」, 「자세히 잘 설명해 준다」, 「질문에 대답을 잘 해 준다」 등이 많았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 형성에 관련된 진술내용들을 보면 「불친절하다」, 「짜증을 잘 낸다」, 「태도와 말투가 공손하지 못하다」, 「무뚝뚝하다」, 「신경질적이다」, 「질문에 불성실하게 대답한다」 등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간호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질문이나 의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는 태도, 처치 전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설명해 주는 자세 및 상냥하고 예의바른 태도와 말씨가 일반인들의 간호사에 대한 「친절하다」는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간호사의 친절교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 이다.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중 「깨끗하고 단정하다」의 범주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일반인들이 흰색 유니폼이나 캡, 간호사의 용모 등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피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송인자(1993)의 연구 중 바람직한 간호이미지 실행에 대한 의사, 병원직원 일반인의 집단간 평점비교에서 '용모깨끗 단정'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여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친절, 깨끗, 단정함'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로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의 범주가 3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May등(1988)이 보고한 대학 신입생과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문직으로서 간호는 이상적인 전문직이 지니는 몇가지 속성 즉 지식 활용, 전문직업적 안정, 학구적 성취 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 했다는 결과와 송인자(1993)의 '간호사들은 숙련된 간호기술을 지니며 간호사로서의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의 범주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경우에는 1위로 나타난 것에 반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학생의 경우에는 4위로, 비간호학생의 경우에는 6위로 나타난 것을 볼때, 실제로 간호현장에서 간호활동을 해 보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간호사가 전문직인이라는 면이 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또한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들의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를 지닌다」는 이미지 범주에 속하는 노력에 대한 진술이 15위에 그쳐 이에 대한 간호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로서 「봉사한다」의 범주가 4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반인들이 간호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봉사한다」의 범주가 비간호학생과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학생의 경우 4위와 3위로 나타났는데 반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경우 11위로 나타난 것은, 간호현장에서 실제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와 직접 접촉하여 함께 활동해 보았을 때 간호사 자신이 대상자를 위해 헌신적,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갖기 보다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바를 행하고 있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준 결과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다정하고 편안하다」라는 긍정적 이미지 범주는 간호학생, 비간호학생 모두에서 크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가 대체로 친절하고, 항상 미소면 얼굴로 환자를 대하며, 어머니 같이 다정다감하고 포근하여 편하게 느껴지게 한다는 이미지를 대상자들이 상당히 갖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간호사를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정신적인 지지자나 어머니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박성애 등(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Ⅳ 즉, 어머니와 동일시 하는 유형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는 범주의 진술들 또한 많이 나타났으며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들의 진술 빈도순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송인자(1993)의 연구결과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문항이 간호사 집단

에서 6위로 보인 반면 의사, 병원직원 집단에선 각각 17위, 20위로 나타나 간호사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다른 사람들은 간호사가 책임감있게 성실히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사실과는 달리, 일반인들도 간호사가 제 활동영역에서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감있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대상자들이 간호사에 대해 「예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진술들 또한 많았는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경우에는 진술 빈도순이 13위인데 반하여 비간호학생의 경우 5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실제 간호상황에서 활동해 보지 않는 일반인들은 간호사의 활동이나 그 의미 등에 대한 이해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모나 모습에 치중하여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의 이미지 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은 전체 8위로 많이 언급되었으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에서는 3위로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에서는 13위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직접 간호사와 함께 활동해 봄으로써 간호사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위에서 언급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도 오래 전부터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형성된, 이상적인 간호사란 예쁘고, 젊고, 냉정하고, 조용하며, 깨끗 단정하며,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피상적으로 정형화된 간호사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숙련되다」범주의 기술들을 간호학생이 비간호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언급하였고, 비 간호학생은 간호학생보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예쁘다」, 「천사같다」, 「나이팅게일 이미지」범주에 속하는 진술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 점과 간호학생들 중 임상실습 한 학생이 임상실습을 하지않은 학생에 비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숙련되다」,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탐구자세를 가진다」범주의 진술을 상대적으로 더 언급하고,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임상실습 한 학생에 비해 「봉사한다」, 「예쁘다」, 「강인하다」, 「승고하다」범주의 진술을 상대적으로 더 언급한 점들은 간호학문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 간호사에 대해 그들

의 외모나 피상적인 모습, 희생과 봉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되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 보다 바람직한 전문직인으로서의 간호사 태도 및 자질 측면에 중점을 둔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부정적인 이미지 중 「불친절하다」, 「냉정하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권위적이다」,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범주는 현재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원체계 내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관찰하거나 경험할 때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환자에게 불친절하고 냉정하며, 위압적인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로서, 박성애 등(1992)의 보고에서, 간호사 자신 및 일반인이 환자를 편하게 해 주기 보다는 위압적이고 무표정한 직업인으로 간호사를 인식하는 뼈꾸기 등지형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환자나 그 가족들은 간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업무면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런 측면에 대한 언급이나 불평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불친절, 무성의, 인간성 상실, 비협조, 기계적 활동 등 간호사의 태도 및 정신적 자세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를 신성시 하지 않고 간호사를 성직자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간호사에게 희생, 봉사, 헌신 등을 기대하는데, 그들의 이러한 기대에 간호사가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불만을 양상하게 되어 「불친절하다」, 「냉정하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권위적이다」,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특히 가족이 동거하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간호사의 인성 교육에 큰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간호사의 부정적 이미지 중 「힘든 과업이다」범주는 송인자(1993)의 연구에서, 간호사, 의사, 병원직원, 일반인 집단 모두 '항상 바쁘게 일한다', '너무 힘든 직업이다'라는 간호 이미지 항목에 높은 긍정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며, 대한간호협회(1994)에서 40명의 유효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재직시 가장 큰 불만으로서 간호인력부족으로 인한 격무가 35%로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간호사의 주요 이직요인으로 과도한 작업량, 격무 등을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Wolf, 1981; Sheridan, 1985 in cited 김미영, 1995)와 견주어 볼 때, 이는 최근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호인력 부족현

상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간호사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므로써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시켜 간호사의 이직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간호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간호사 자신, 대상자 모두에게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부응하는 간호수준으로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정립을 위해 환자당 간호사의 적정 비율이 강화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의 부정적 이미지 중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독자적이지 못하다」범주는 주로 간호사는 의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기능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인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고, 간호사 스스로는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송인자(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대 간호의 다양성과 간호 영역 및 역할의 변화, 간호교육수준의 향상과 간호의 전문직화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간호현장의 간호사들이 진료보조업무에 치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간호사 이미지는 비독자적이고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범주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 「친절하다」와「불친절하다」, 「깨끗하고 단정하다」와「단정하지 못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와「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등과 같이 간호사에 대해 양립되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한 간호사들의 외모, 복장, 언행, 태도, 직업관, 지적 수준 및 기술의 숙련성, 정신적 자질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간호사들이 지나치게 진료보조 업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간호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여건이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 간호사의 인격 등의 정신적 자질,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넷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간호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전략 즉, 간호사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대증매체 활용, 전문직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I. 요약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향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계내에서 간호사들은 스스로 전문직으로 자처하고 학문적, 실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일반대중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간호 전문직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간호전문직 위상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1995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에 소재한 3개 대학 및 3개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326명을 연구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얻었다. 자료의 분석은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수집된 자료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에 포함된 진술들을 범주화하여 빈도순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친절하다」, 「깨끗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봉사한다」, 「다정하고 편안하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예쁘다」,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밝고 명랑하다」, 「지적이다」, 「천사같다」, 「숙련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강인하다」,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를 가진다」, 「착하다」, 「승고하다」, 「나이팅게일 이미지」와 같이 21개 범주로 구분되었다.
2.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중 「친절하다」범주에 속한 진술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깨끗하고 단정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봉사한다」, 「다정하고 편안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간호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중 「친절하다」범주에 속한 진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다정하고 편안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비간호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중

「깨끗하고 단정하다」범주의 진술이 가장 많았고, 「친절하다», 「다정하고 편안하다», 「봉사한다», 「예쁘다」는 범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간호학생 중 임상실습을 한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친절하다»,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범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간호학생 중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친절하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봉사한다」는 범주의 순서로 나타났다.

7.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불친절하다», 「냉정하다», 「힘든 과업이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단정하지 못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경망스럽고 수다스럽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무섭다», 「독자적이지 못하다», 「권위적이다», 「환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공정성이 부족하다», 「잘난 척한다», 「계속적인 자기성찰과 탐구자세가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물품관리가 비효율적이다」와 같은 21개 범주로 구분되었다.

8.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중 「불친절하다」범주에 속한 진술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냉정하다», 「힘든 과업이다», 「형식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단정하지 못하다」는 범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Alice M. Kiger(1993) Accord & discord in Student's images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2(7), 309-317.
Diana Mendez & Margaret Louis (1991) College Students's Image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7), 311-319.
Lois Van Cleve(1998) Nursing Image as reflected in sex role prefer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7(9), 390-393.

Kalisch P. A. & Kalisch B. J.(1982) The Images of the Nurses in Motion Pictures, AJN, April, 605-612.

Kalisch P. A. & Kalisch B. J.(1982) The Images of the Nurses in Novels, A.J.N. 1220-1224.

Kalisch P. A. & Kalisch B. J.(1982) Improving the Image of Nursing, 605-612.

Koltet, P. & Clarke, R.N.(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in cited 송인자, 대한간호, 1993, 51.

Raynor, C.(1984) What do the Public think of Nurses?. Nursing Times, No. 80, 28-31.

Snow-Antle, S.(1984) The images across the Atlantic, Nursing Times, No. 80, 54-56

김미영(1995) 간호사 이직대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조자 외(1993) 간호사의 복장형태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4), 631-648.

박성애 외(1992) 간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Q-방법론 적용, 간호학논문집, 6(1), 13-23.

송인자(1993) 간호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분석, 대한간호, 32(2), 51-61.

양은자(1995) 간호단위 관리자의 전문간호 이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자(1986) 임상간호원의 간호원상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종휘 외(1972) 간호원상은 바람직한가?, 대한간호, 11(6), 15-36.

전춘영(1993) 간호이미지 향상전략방안-간호부서의 활동계획과 실시 및 평가, 대한간호, 32(2), 43-49.

정면숙 외 (1993) 신문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1), 16-28.

College Students' Images of Nurses

Kim Bok Lang. Kim Seon Hee. Kim Ok Sook.

Nam Young Hwa. Lee Kil Ja. Chung Bok Y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llege students' images of Nurses.

Data were collected by open-ended questionnaire. 326 subjects were composed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who attended in universities and junior colleges at Pusan, Kyung-buk, and Chung-buk from April 30 to May 31, 199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ll researchers. Statements were categorized and endowed with Key meaning.

The results were

1. Positive images of nurses were classified into 21 categories. They were 「Kind」, 「Clear and smart」, 「Serve」, 「Tender & peaceful」, 「Sincere & hav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Pretty」, 「Be concerned about the patient」, 「Cheerful」, 「Intellectual」, 「Like angel」, 「Be proud of work」, 「Skillful」,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ong」, 「Have a self-reflection & study」, 「Good」, 「Calm」, 「Tolerance」, 「Respect for the patient」, 「Noble」, 「Image of Nightingale」.
2. Among the positive images categories, statements about the 「Kind」 were the most. Statements about 「Clear and smart」, 「Be proud of work」, 「Serve」, 「Tender & peaceful」 were a lot.
3. For nursing students, statements about the 「Kind」 were the most. Statements about 「Be proud of work」, 「Clear and smart」, 「Tender & peaceful」, 「Serve」 were a lot.
4. For non-nursing students statements about the 「Clear and smart」 were the most. Statements about 「Kind」, 「Tender & Peaceful」, 「Serve」, 「Pretty」 were a lot.
5.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no experience of the clinical practice statements about 「Be proud of work」, 「Kind」, 「Be concerned about the patient」 were a lot.
6.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not experience of the clinical practice, statements about 「Kind」, 「Clear and smart」, 「Serve」 were a lot.
7. Negative images of nurses were classified into 21 categories. They were 「UnKind」, 「Cold-hearted」, 「Hard work」, 「Work routinely」, 「Inhuman」, 「Unsmart」, 「Lack of pride for job」, 「Deficiency in knowledge and skill」, 「Imprudent and talkative」, 「Lack a sense of responsibility」, 「Un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Horrible」, 「Dependent」, 「Authoritative」, 「Ignore the patients' needs」, 「unjust」, 「Assert one's importance」, 「Lack of self-reflection & study」, 「Selfish」, 「Be difficult of communication」, 「Ineffective use of goods」.
8. Among the negative image categories, statements about the 「Unkind」 were the most. Statements about 「Cold-hearted」, 「Hard work」, 「Work routinely」, 「Inhuman」, 「Unsmart」 were a lot.